

Religious Education at Higher Education in the Era of De-Religionization: Generation Z and Spirituality Education

Joung Chul Lee*

Kookm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religious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century. However, this trend completely changed in the early 2000s, and since then, the phenomenon of de-religionization has continu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religious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needed for Generation Z in South Korea in this era of de-religionization.

[Contents] This study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religionization phenomenon in Korea. Then, it presents an analysis of the Varkey Foundation's survey results to compare Generation Z in Korea with Generation Z interviewed in other 19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uthor proposes and discusses 'spirituality education' as the type of religious education currently needed and effective for the present generation.

[Conclusions] This study defines spirituality as more inclusive than religiosity, and suggests that spirituality education can ultimately be a form of religious education that restores the deeper nature of religion, helping students to avoid feeling obligated or pressured to connect their religiosity to an institutionalized religion,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m to rediscover their hidden religiosity and nurture it.

[Keywords] De-religionization, Religious education, Generation Z, Spirituality education, Liberal education

* Corresponding to Joung Chul Lee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E-mail: joungchul.lee@kookm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탈종교화 시대 대학의 종교교육: Z세대와 영성교육

이정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한반도의 종교인구는 지난 한 세기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이후 탈종교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Z세대에게 필요한 대학의 종교교육은 무엇일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대한민국의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종교교육 대상자인 Z세대를 다른 나라의 Z세대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바키재단(Varkey Foundation)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 현재 필요하고 효과적인 종교교육으로 ‘영성교육’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결론] 본 연구는 영성을 종교성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정의하며, 영성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에 외면받지 않으며, 제도종교에 자신의 종교성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무나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의 감춰진 종교성을 다시 꺼내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의 심층적 본질을 회복시키는 종교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탈종교화, 종교교육, Z세대, 영성교육, 교양교육

I. 서론

한반도의 종교인 인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었다. 종교인의 증가는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대한민국에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중반에 완전히 바뀌었다. 증가하던 종교인 비율은 마침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한 번 전환된 흐름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종교인들의 이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새로운 종교인구의 유입은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탈종교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탈종교시대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히 종교다. 종교인의 감소는 곧 종교-특히 제도종교와 그 기관들-의 활동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들의 위축된 활동은 결국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축소로 연결된다. 하지만 탈종교시대 제도종교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영향력 축소만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관심’이다.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절반 이상(54%)이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무관심’이라고 응답했다(Gallup Korea, 2021). 이는 26%였던 1997년의 응답과 비교해볼 때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대중은 종교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종교의 영향력 축소만이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역할 혹은 기능의 상실을 가져온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란 이를테면 정서적 위로, 돌봄, 윤리의 제언, 혹은 정의를 위한 의견제시 및 행동 등을 포함한다. 사회가 종교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종교인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의 활동을 때때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관심은 종교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듣거나 수용하는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 약화 혹은 상실은 종교와 사회, 양자(兩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오던 지혜와 진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존재 이유(raison d'être)에 커다란 도전을 맞는다. 반면, 사회는 정서적 돌봄과 초월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종교성을 돌보아줄 인류의 거대한 유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가, 종교의 사회적 기능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속사회의 결핍은 대한민국이 탈종교시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그중 하나는 인간의 종교성에 관한 것이다. 탈종교시대에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종교로부터의 이탈은 곧 종교성 상실을 의미하는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종교성은 고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느 곳으로 숨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종교성에 대한 질문은 종교기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만약 탈종교시대가 종교성 상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종교기관에게 남은 역할이란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이 되는 것뿐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탈종교화가 결코 종교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실되었다기보다는 감춰진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종교기관은 그들의 숨겨진 종교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Z세대와 종립대학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으로 한정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탈종교시대를 보내고 있는 Z세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학은 어떤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해당 질문들을 중심에 두고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20대의 탈종교화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의 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키재단(Varkey Foundation)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Z세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Z세대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어떤 필요(needs)가 있는지 탐구한다. 셋째, 탈종교시대의 대한민국 Z세대 대학생들을 위한 적절하고 시급한 대학의 종교교육으로서 영성교육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영성교육이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에 외면받지 않으며, 제도종교에 자신의 종교성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무나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의 숨겨진 종교성을 다시 꺼내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II. 대한민국의 탈종교화 현상: 20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탈종교화 현상은 여러 종교인구 설문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중 가장 신뢰할만하고 표본이 큰 조사는 한국인구주택총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종교 항목을 정부가 직접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이후 1995년, 2005년, 2015년 등 10년 단위로 총 네 차례의 조사에서 종교인구가 조사되었다. 먼저 첫 세 번의 조사에서는 무종교인의 비율 감소, 그리고 종교인 비율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5년 무종교인 비율은 57.4%였고, 1995년에는 49.6%, 2005년에는 47.1%였다(KOSIS). 그런데 이러한 무종교인 비율의 감소 그리고 종교인 증가는 1985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한반도 내 종교인 비율은 5% 미만이었고(Kim, 2013: 6), 1964년의 조사에서는 12.7% 정도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Lim, 2018:137).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초부터 한국인구주택총조사의 2005년 조사 때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흐름이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종교에 소속된 종교인을 의미한다. 종교인구 조사는 서구의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제도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유교나

무교(巫敎) 등에 대한 참여 인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못했다(Lim, 2018: 135).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조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차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종교인 감소와 종교인 증가 추세가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시행된 한국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무종교인 비율은 56.1%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종교인 비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한국인구주택총조사보다는 표본이 훨씬 적지만 역시 유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그리고 2021년 총 여섯 번의 조사에서 매회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교인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2004년을 기준으로 종교인 비율이 증가에서 감소로, 무종교인 비율이 감소에서 증가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84년 조사에서 종교인 비율은 44%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다 2004년에는 54%까지 증가하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50%로 감소하였고, 2021년 조사에서는 40%로 나타났다(Gallup Korea, 2021). 종교인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탈종교화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쇠퇴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극명하지만,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여전히 종교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조사는 2050년까지 종교인은 계속 증가하며 무종교인(religiously unaffiliated)은 절대 숫자에서는 다소 증가하나 인구비율에서는 16.4%에서 13.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5). 가디언지의 Harriet Sherwood는 이러한 변화(종교인 증가와 무종교인 감소)는 개종보다는 출산율에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Sherwood, 2018). 즉, 대한민국의 탈종교화 현상은 세계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탈종교화 현상은 연령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다. 가장 종교인이 높게 나왔던 2004년 조사와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조사를 비교해보면 인구 전체에서 종교인 비율은 54%에서 40%로 14%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세는 모든 연령에서 관찰되었다. 이중 탈종교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세대는 40대로, 이 세대의 종교인 비율은 57%에서 32%로 25%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줄어든 세대가 바로 20대이다. 2004년에는 20대 인구의 45%가 종교인이라고 답변하였지만, 2021년에는 총 23%만이 종교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총 22%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40대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 세대 중 20대는 종교인 비율이 가장 낮다. 한국갤럽의 조사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는 거의 10명 중 8명이 종교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라면 20대의 종교인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세계 인구에서 중

교인을 대략 85% 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20대 종교인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20대의 종교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들이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경우, 20대 개신교인 비율은 14.5%인데 이 중 다시 10명 중 4명 정도(41.7%)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밝혔다(김성희, 2022). 20대의 종교인구 중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실제 종교 생활을 하는 20대 종교인은 22%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20대는 호감 가는 종교에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이다. 20대의 총 56%가 호감 가는 종교에 ‘없음’이라고 답했다(Gallup Korea, 2021). 더불어 20대는 무종교인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를 답한 비율이 64%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높았다(Gallup Korea, 2021). 즉,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20대의 종교현황을 요약해보자면, 20대는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교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세대 중 하나이며, 현재 종교인 비율이 가장 적은 세대이다(10명 중 2명). 이들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그 어떤 종교에도 호감을 느끼지 않으며, 종교가 없는 이들 10명 중 6~7명은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다. 이들은 제도종교에 대한 호감, 관심, 소속 자체가 모두 현저히 낮은 세대이고, 탈종교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 중 하나이다.

III. Z세대의 특징 분석: 바키재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처럼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20대를 인구통계학적으로 ‘Z세대’라고 지칭한다. Z세대라는 명칭은 X세대의 다음-다음 세대라는 의미에서 X 다음-다음의 알파벳인 Z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X세대의 다음은 현재 MZ세대라고 할 때의 M, 즉 밀레니얼 세대이다. 하지만 그 순서를 Y로 생각하고(실제 Y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 다음에 나온 세대를 Z라고 명명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속칭 ‘부머(boomer)’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Z세대에 속한 이들은 ‘주머(zoom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주머들은 X세대의 자녀 세대이다.

Z세대의 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첫 번째 디지털 원주민 세대이며, 협동을 잘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이고 (즉,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거나 하지는 않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가치를 두는 세대로 주로 일컬어진다. 본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Z세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들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종교 교육을 상상하는데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Z세대, 특히 대한민국의 Z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러한 삶의 경험들과 종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필자는 대한민국 Z세대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조사 데이터 중 하나로 영국의 바키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바키재단은 더 나은 교육과 교사 양성을 위한 비영리재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상금(미화 100만불)의 교사를 위한 상(Global Teacher Prize)을 매년 수여하고 있는 재단이기도 하다. 이 재단은 2016년 전 세계 20개국의 Z세대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터키, 영국, 미국이었으며, 각 나라 당 약 1,000명에 달하는 숫자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조사 당시 15살에서 21살 사이였고, 현재 22살에서 28살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6년 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대학생들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현재의 Z세대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조사는 한국 Z세대를 세계 다른 나라 Z세대들과 나란히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Z세대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조사는 Z세대가 겪는 삶의 상황과 종교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들을 담고 있다. 더불어 조사대상들은 현재 대학생들과 여전히 중첩된다. 따라서 바키재단의 연구는 여전히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Z세대는 다른 나라의 Z세대들에 비해 몇 가지 부분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첫째, 한국 Z세대는 행복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20개국 중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9위에 해당했다. 이는 20위인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한국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46%였고, 일본은 45%였으며, 그에 반면 20개국 평균은 68%였다(Broadbent et al., 2017: 27). 한국과 일본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두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한 두 나라였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7%로 일본과 동일하였고, 이는 역시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¹⁾

둘째, 한국의 Z세대는 조사 대상인 20개국의 Z세대들 중 유일하게 자신의 나라가 ‘살기 나쁜 곳’이라고 답한 비율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은 나라였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조사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살기 나쁜 곳’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Broadbent et al., 2017: 57). 이러한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낮은 행복감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 아래 제시된 <표 1>, <표 2>, <표 3>, <표 4>는 바키재단의 결과에서 관련 데이터를 필자가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다시 만든 표이다. 더욱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자 하면 바키재단의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하기 바란다.

<표 1> 행복도: 당신은 현재 행복합니까? (adapted from Broadbent et al., 2017: 28)

<Table 1>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at the moment? (단위: %)

국가	행복 (happy)	행복하지 않음 (unhappy)	Net Happy (happy-unhappy)
평균	68	9	59
인도네시아	98	2	90
나이지리아	85	7	78
이스라엘	78	5	73
인도	80	8	72
아르헨티나	70	5	65
미국	73	10	63
중국	70	9	62
러시아	64	4	60
캐나다	70	10	60
브라질	69	9	60
남아프리카공화국	69	9	60
독일	69	10	59
이탈리아	65	7	58
영국	68	11	57
프랑스	67	10	57
호주	67	11	56
뉴질랜드	62	12	50
터키	59	9	50
대한민국	46	17	29
일본	45	17	28

셋째, 한국의 Z세대는 자신의 행복에 종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오직 25%만이 종교를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답변하였다(Broadbent et al., 2017: 31). 주어진 항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족과 좋은 관계’, ‘친구와의 좋은 관계’, ‘공부나 일에서의 만족감’,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충분한 돈’, ‘나의 신앙 혹은 내 종교에 대한 헌신’이었다. 총 7개 항목 중 나머지 여섯 항목에 대해 한국의 Z세대는 86%~94%의 응답을 보인 반면, 종교는 25%가 나왔다. 결국 이 수치는 Z세대의 종교인 비율(한국갤럽에 따르면 22%)

<표 2> 국가만족도: 당신의 나라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adapted from Broadbent et al., 2017: 57)

<Table 2> Is your country a good place to live? (단위: %)

구분	좋다 (good)	나쁘다 (bad)	Net (good-bad)
평균	60	7	53
캐나다	87	1	86
나이지리아	87	1	86
뉴질랜드	83	1	81
호주	80	1	79
인도	78	3	75
독일	75	2	74
인도네시아	72	2	70
중국	66	2	64
일본	69	5	64
영국	67	4	63
미국	63	5	57
이스라엘	60	5	55
프랑스	51	7	44
이탈리아	48	8	40
러시아	46	11	34
브라질	46	12	34
아르헨티나	39	9	30
터키	43	16	28
남아프리카공화국	32	19	12
대한민국	23	29	-6

을 반영하는 수치로 보인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직 6%만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20개국 중 13번째로 평균 11%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종교가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18%인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역시나 상당히 적은 수치다(Broadbent et al., 2017: 74).

넷째, 한국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경제적 안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젊은이들은 현재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표 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신앙과 돈을 응답한 비율 (adapted from Broadbent et al., 2017: 31)

<Table 3>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identified faith and money as factors contributing to their happiness (단위: %)

구분	신앙(종교)	충분한 돈
평균	44	85
인도네시아	93	84
나이지리아	86	96
터키	71	86
남아프리카공화국	70	82
브라질	70	85
중국	70	85
인도	65	86
미국	54	86
이스라엘	53	84
캐나다	31	88
러시아	31	84
아르헨티나	29	73
이탈리아	29	80
뉴질랜드	29	83
호주	27	87
영국	25	84
대한민국	25	90
독일	21	85
프랑스	18	87
일본	9	80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42%)이 ‘경제적 평등(더욱 균등한 소득분배)’을 꼽았다(Broadbent et al., 2017, 68).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평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의 Z세대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평등을 무척 필요한 요소로 여기면서도,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52%로 20개국 중 19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Broadbent et al., 2017: 70). 대신 한국의 Z세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일/공부하는 것(노력)'을 꼽았다.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Broadbent et al., 2017: 47). 세계 평균은 27%이었고, 한국은 무려 51%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는 소득재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참여를 통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성공사회 진입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은 성공을 위한 열망에 비해 윤리적 가치는 다소 경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상국 전체 Z세대는 ‘가족’, ‘노력’, ‘정직’이라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한 대답이 27%, 27%, 26%로 거의 균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표 4>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adapted from Broadbent et al., 2017: 47)

<Table 4> Most important personal value

(단위: %)

구분	가족	노력	정직	친절	인내
평균	27	27	26	11	6
남아공	22	33	28	12	3
나이지리아	13	41	16	17	8
아르헨티나	33	23	26	8	5
브라질	35	17	35	7	3
일본	15	41	16	18	8
인도네시아	23	12	49	7	7
인도	28	25	30	9	3
대한민국	22	51	15	5	2
중국	30	27	24	9	9
터키	29	17	38	3	6
뉴질랜드	25	27	21	21	3
호주	25	31	21	17	3
캐나다	25	30	23	16	4
미국	28	22	28	13	5
러시아	47	22	16	8	2
이탈리아	29	29	25	7	6
독일	35	12	31	7	13
프랑스	24	28	26	10	10
영국	23	31	20	19	5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노력’이 51%로 상당히 비균등하게 높게 나왔고, ‘가족’은 22%, ‘정직’은 고작 15%가 나왔다(Broadbent et al., 2017: 47). ‘정직’ 15%는 조사국 전체에서 최하위 수치이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정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답했고, 미국(28%)이나 독일(31%) 등도 한국보다는 훨씬 높았다.

더불어 한국이 가족우선, 공동체 우선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과거의 이미지도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Z세대는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41%가 ‘가족’이라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전체 평균인 47%보다 낮은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족’을 선택한 이들은 22%에 불과했는데, 이는 흔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로 알려진 미국(28%), 독일(35%), 프랑스(24%) 같은 나라들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즉, 젊은 세대의 많은 이들이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쟁사회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Z세대는 자신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로 학업과 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세 가지 요소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학업은 70%, 돈은 66%의 답변율을 보였다. 두 가지 항목 다 20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Broadbent et al., 2017: 34). 세계 평균은 학업 스트레스가 46%, 돈이 51%였다. 더불어 한국 젊은이들은 또한 ‘정부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살며 일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해야 하는가 혹은 어렵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더욱 어렵게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비율은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Broadbent et al., 2017: 64). 조사국 중에 오직 다섯 나라의 젊은이들만이 이민을 더욱 어렵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그중 가장 강하게 이민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밝힌 나라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잠재적 경쟁자들의 진입을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바키재단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한국의 Z세대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Z세대는 세계에서 (적어도 20개국의 조사대상국 중) 가장 행복감이 낮으며, 자국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성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관찰된다. 안타깝게도 개인의 성공과 안정이 정직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혹은 가족이나 사회를 위한 헌신보다 중요하게 나타나며, 이를 성취하는 길은 오직 개인의 노력과 경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공과 실패의 짐을 (심리적으로) 개인이 무한으로 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행복감과 국가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키재단의 연구가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행복도, 사회기여의지,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떠한 모종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조사대상

국가의 Z세대 대부분은 대체로 종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답변했지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국가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종교가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 요소라고 답변한 경향이 관찰된다. 행복도 순위 상위 다섯 국가인 인도네시아(93%), 나이지리아(86%), 이스라엘(54%), 인도(65%), 브라질(70%)은 종교가 전반적인 행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수치(괄호 안 숫자)가 상당히 높았다. 물론 이를 통해 종교가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선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의 젊은이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이 관찰되고,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이나 일본 젊은이들의 행복도가 낮게 관찰된다는 것은 종교와 삶의 만족도가 나름대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가능케 한다. 둘째, 바키재단의 연구는 사회기여의지와 종교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Broadbent et al., 2017: 69).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30%가 사회기여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14%만이 사회기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즉,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혹시 종교가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를 상상하게 하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장려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대체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기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행복도, 사회기여, 종교가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Z세대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부정적인 사이클로 관찰된다. 역시나 인과관계는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Z세대는 종교인 비율이 매우 낮고, 행복도도 매우 낮으며, 사회기여 의지도 매우 낮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인류의 중요한 도구를 잃어버린 채, 모두가 각자도생으로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본다. 대한민국이 항상 자살률 순위의 수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는 그리 과도한 해석도 아닐 것이다. 이들은 사회를 매우 경직되고 불평등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과 경쟁을 통해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감 혹은 압박감이 높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은 적으며, 자신의 삶과 국가, 그리고 종교에 대한 기대는 세계 어느 나라 젊은이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러한 총체적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Z세대에게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종교교육은 어떤 접근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에도 부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IV. 21세기 대학 종교교육의 방향: 영성교육

학자들은 그간 종교교육의 유형화에 대해 논의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어떤 학자

들은 종파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어떤 학자들은 영어적 표현을 차용해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과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다시 신앙교육적 종교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 분류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종교성 교육 혹은 영성교육이라는 유형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보다는 이중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영성교육이 탈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이 지금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영성교육이란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성교육은 제도화된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탈제도종교적 종교교육’ 혹은 ‘탈종교종교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영성교육은 제도종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참여자 모두를 어떠한 종교성을 지닌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으로 이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여 참여자가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종교성을 자각하고, 종교적인 사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이다. 즉, 관심의 초점 자체가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성찰과 성장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성교육이 제도종교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종교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산물들, 경전의 내용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은 참여자 자신이 가진 종교성과 마주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종교적인 질문들과 씨름할 때 영감과 지혜의 재료로 적절히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의 전파 혹은 전도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종교성이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필자는 ‘초월과 연결되고자 하거나 초월을 경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초월’은 단순히 초월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월은 ‘나’를 넘어서는 ‘자기초월’ 혹은 ‘의식의 변화’ 혹은 ‘깨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성과 영성은 완전히 상호 배제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위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떠올리는 인간의 본성 혹은 절대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본성이 종교성이라면, 영성은 그러한 질문들 혹은 욕구들을 다루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혹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가깝다. 듀이는 ‘종교(religion)’와 ‘종교적(religious)’인 것을 구분하며, ‘종교적’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과 모든 제안된 목적이나 이상을 향하여 갖게 될 수 있는 태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Dewey, 1934: 9), 그러한 관점은 필자가 제시하는 ‘영성’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성이 초월을 추구

하고자 하는 욕구에 관한 것이라면, 영성은 그러한 욕구를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이다. 영성은 초월을 향한 나의 본성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만약 그것이 초월자를 향한 것이라면 초월자와 연결되는 능력, 혹은 그 연결을 추구하거나 유지하는 힘 혹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유재봉은 이를 ‘종교적 영성’과 ‘비종교적 영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가 설명한대로 “이러한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Yoo, 2013: 106). 종교적 영성이나 비종교적 영성이나 하는 문제는 얼마나 충실히 특정 종교의 상징 세계 안에서 초월과의 관계를 찾아 나가느냐의 문제일 뿐, 완벽히 상호 배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21세기 대학이 제공해야 할 종교교육은 종교성교육을 포함하며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영성교육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것에 질문하는 본성을 깨우치는 것(종교성교육)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그러한 본성을 잘 다스려서 나름대로의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영성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명희는 영성교육을 “인간 존재의 잠재력에 내재하는 자기초월의 세계를 알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Han, 2007: 63).²⁾ 필자는 그의 표현에 동감하며 이를 다음 세 가지로 더욱 확장시켜보고자 한다. 첫째, 영성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초월적 질문들을 찾아내고, 이와 마주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자기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자각하고, 초월자나 초월의 세계를 욕망하게 된다. 둘째, 영성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상승한 다양한 근원적인 질문들 중 어떠한 것들과 씨름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씨름할 것인지 등을 돕는 교육이다. 학습자들은 욕구가 지혜롭게 조절되어야 함을 배울 것이고, 배움의 과정 속에 영성의 존재를 자각할 것이다. 셋째, 영성교육은 학습자들이 초월을 향해 나아가고 연결되는 과정에 동행하는 교육이다. 즉, 과정에 놓인 학습자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면한 모순과 도전 등을 이겨내며 초월과 연결되는 나름의 방식을 찾아낼 때까지 지식과 방향을 제공해주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돌봄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한명희가 덧붙인 바와 같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신의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성스러움의 차원,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경이로움과 존재의 관계성을 감지할 수 있는 내재적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Han, 2007: 63).

이러한 영성교육이 탈종교화 시대 경쟁사회에서 행복을 상실한 대한민국 Z세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종교교육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까닭은, 먼저 이러한 교육이 무엇보다 주어진 사회 시스템에서 매몰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계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면한 과제 너머를 바라보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가?’ ‘우리는 왜 이렇게 달려야만 하는가?’ ‘사회는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성공이

2) 영성교육에 대한 제안은 2010년대를 전후로 하여 여러 연구가 있었다(Sohn, 2009; Beak, 2009; Kim, 2011; Yoo, 2013; Ko, 2013).

란 무엇인가?’ 등, 영성교육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즉, 종교성을 발현할 수 있는—시공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영성교육은 우리의 Z세대가 일차적으로 자기 내면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한 발자국 멀리서 돌아볼 수 있는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의미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변화 없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갖는 고통은 결코 급격히 경감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과 성찰의 시간은 심신의 안정을 지탱해주고, 사건과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영성교육이 대학의 종교교육에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성교육이 Z세대가 제도종교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해 더불어 상실하게 된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그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존엄하고 철학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도록 한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모두 배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교육가는 철저히 조력자다. 학생들은 참여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질문과 마주하고, 스스로 씨름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 교육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 명상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삶과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사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과거 역사적 인물들이 씨름했던 질문들이나 그 과정을 소개할 수도 있다. 이때 교육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내러티브(이야기)들을 소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붓다의 고민, 모세의 갈등, 바울의 열정, 무함마드의 포용 등을 보여주는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종교’를 소개하기보다는, 각 인물들이 가졌던 고민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몰랐던 질문을 알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질문이 긍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특정 종교의 이야기나 전통들로부터 인류가 쌓아온 지혜(즉, 영성)와 만나 영감을 얻기도 한다. 이로써 종교교육은 보편성을 획득한다. 즉,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김남석은 예수의 메시지를 변용하여, “기독교 교육(종교교육)이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학생이 기독교 교육(종교교육)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던진 바 있다(Kim, 2011: 85). 이는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영성교육’에 담긴 종교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점과 맞닿아 있다. 영성교육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교육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교육이다. 종교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만나는 것은 제도로서의 종교, 즉 신념이나 교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동료 인간’이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거대한 초월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그래서 수 많은 문제들 앞에 감히 의문을 던질 수도 없었던 약하고 작은 인간—에서 동료 인간들과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 위에 올라섬으로써 거대한 초월과 마주할 용기를 갖는 ‘종교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 속 20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Z세대가 다른 국가의 Z세대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지 분석해보았으며, 영성교육이 어떻게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학의 종교교육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탈종교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바키재단의 연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Z세대가 다소 우려가 될 만큼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경쟁과 불행감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Z세대를 위한 대학의 종교교육으로 영성교육을 제안하였다.

영성교육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적·영적 돌봄의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경계하고, 어쩌면 혐오하는 외피로서의 종교, 조직으로서의 종교를 전해주고자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종교가 본래 담당했던 심층적 기능들,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과 만나게 하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교육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성교육은 채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종교 교양과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종교교육은 개념적으로 종파교육과 교양교육, 혹은 신앙교육, 종교학교육, 종교성교육 등으로 구분하지만, 개별적인 종교교육 활동 안에서는 이들이 결코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 종교 교양과목 안에서도 종파교육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영성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이 갖는 분량의 한계상 더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이곳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난 학기 이와 같은 영성교육적 접근으로 어느 종립대학의 채플을 인도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대학의 종교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해당 채플은 기독교의 언어로 기독교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기도보다는 명상이, 설교보다는 성찰이,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시도되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특히 기독교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과 더 닿아있는 수업이고, 더 와닿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성교육적 접근은 제도종교의 언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교리의 설파를 자제함으로써 본래 종립학교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종교교육으로부터의 과도한 후퇴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영성교육은 앞에 언급된 학생의 말처럼, 오히려 종교교육 본래의 의미를 되살린 교육이다. 예수도, 붓다도, 무함마드도 제도로서의 종교를 창시하고 조직을 위한 헌신을 초월과의 관계보다 우선한 이는 없다. 이들의 모든 의도와 가르침은 고통 속의 인간이 초월과의 관계 혹은 자기초월의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

서 영성교육은 본래적 의미에서 종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종립대학의 종교교육들에는 이러한 영성교육적 측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기존의 교육이 영성교육으로 모두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되어온 종파교육이나 교양교육, 신앙교육이나 종교학 교육들은 모두 특정성(particularity)을 지닌 종교-상징적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상징들이 지금의 세대들에게 신뢰와 관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현대의 종교교육은 무엇을 하든 결코 열렬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제도 종교적 언어를 외면하면서, 더불어 종교라는 외피 안에 담겨있었던 위대한 인간들의 정신문화적 산물, 즉 영성-다시 말하자면, 초월을 감각하고 초월과 관계맺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고 길러나갈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영성의 상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Z세대가 갖는 낮은 행복도와 낮은 사회기여도의 궁극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불행의 교착상태를 견뎌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중대한 ‘등불’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때 영성교육은 그들에게 다시 거부감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등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본다.

References

- Broadbent, E., Gougoulis, J., Lui, N., Pota, V., and Simons, J. (2017). Generation Z: Global Citizenship Survey. Varkey Foundation.
- Dewey, J. (2013). *A Common Faith: Second Edition*.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Gallup Korea. (2021). Religion of Koreans 1984-2021. Retrieved 2023. 10. 3. fr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Kim, C. (2013). The Identity of Korean Religion after 1945. *Religion and Culture*, 25, 1-25.
- Kim, G. (2014). Tasks and Prospect of Spiritu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Focused on WonKwang University. *Theology and Philosophy*, 24, 45-75.
- Kim, N. (2011). Campus Mission and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An Educational Paradigm Shift from Exoteric Education to Esoteric Education. *University and Mission*, 21, 83-108.
- Ko, M. (2013). The Meaning of Spiritual M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6(1), 59-85.
- KOSIS

- Lim, Y. B. (2018). The Religious Landscape and Religious Measurem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3, 125-151.
- Beak, J. (2009). Spirituality of Education in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Focused on Life Spiritual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0, 153-174.
- Pew Research Center (2015. 4. 2.).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Why Muslims are Rising Fastest and the Unaffiliated are Shrinking as a Share of the World's Population. Retrieved 2023. 10. 4. from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5/04/02/religious-projections-2010-2050/>.
- Sherwood, H. The Guardian (2018. 8. 27.). Religion: Why Faith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Retrieved 2023. 10. 4. from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8/aug/27/religion-why-is-faith-growing-and-what-happens-next#:~:text=The%20short%20answer%20is%20religion,the%20global%20population%20is%2028.>
- Yoo, J. B. (2013). Spirituality in Education: Towards a Recovery of Spirituality in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1), 97-117.
- 김성희 (2022). “2022 청년트렌드리포트와 캠퍼스 선교”. K기독신문. 2022. 11. 21. Retrieved 2023. 10. 2. from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84>.
- 손원영 (2009).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Translated in English) Sohn, W. Korean Culture and Christian Education of Spiritualit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한명희 (2007).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한명희 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M. H. (2007). Spirituality and Education: Towards an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Han, M. H. et al., *Religiosity, A New Paradigm for Future Education*, Seoul: Hakjisa.